

The Points and Opinion of Title Main Entry Card

現行 書名基本記入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金 致 雨  
釜山女專圖書館學科

目 次

- I. 緒 論
- II. 現行 書名基本記入의 立場에서 본 그 自體의 問題點
- III. 現行 著者名基本記入의 立場에서 본 書名基本記入의 問題點
- IV. 現行 書名基本記入의 變革에 관한 代案
- V. 現行 書名基本記入과 代案 書名基本記入의 比較 檢討
- VI. 結 論

I. 緒 論

東書目錄에서 가장 隘路를 겪고 있는 것은 再言할餘地 없이 漢字標目의 處理問題이다. 그것은 歐美와 같이 單一文字(Rome字)를 使用하는 나라에서는 別問題가 없겠으나 우리 나라와 같이 同音 異文字(한글과 漢字)를 使用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共通된 現象인 것이다. 이를테면 뜻글인 漢字를 使用하는 경우 한글로 標目을 하면 1人인 경우라도 그것을 다시 그 圖書(主로 標題紙)에 나타난 形式대로의 이름을 書名表示 다음에 記載해 주어야하는 不便한 點이 있다. 그렇다고 바로 漢字를 標目으로 하던 排列에 便利하도록 하기 위하여 日本에서와 같이 그 위에 한글로 表記를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 兩者의 長短點을 比較해본 結果 前者가 우수하다는 쪽으로 기울어 標目은 한글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勿論 이 方法이 便利한 方法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筆者가 拙稿에서 論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관한 未備한 點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後者보다 좋다는 것을 既定事實化하고 그것을 根據로해서 書名基本記入을 새로운 方向으로 變革시켜 보자는 데 그 目的이 있다.

現在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하는 경우는 그 圖書의 標題紙에 나타난 대로 記載함을 原則으로 하는데, 大

部分의 東書는 書名이 漢字로 되어 있으므로 排列의 基準이 되는 標目이지만 거의가 漢字로 記載되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 漢字書名인 경우는 排列의 便宜上 그 위에 한글로 表記하여 주고 있다. 或者는 이것을 標目이라고 誤解하기도 하며, 어떤 圖書目錄에는 이 表記가 大字로 되어 있고 書名이 小字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表記한 한글을 標目으로 錯覺한 目錄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目錄의 初步者는 漢字書名인 경우라도 이것을 著者名 基本記入과 混同하여 아예 한글로 記載하는 例도 왕왕 있다. 이것은 웃지 못할 事實이다.

또 漢字書名인 경우 그 위에 한글로 表記를 하게 되면 Space가 협소하여 副出 또는 分出이 困難하여지는 點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現行 書名基本記入의 隘路點은 거의 누구나 指摘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代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筆者는 韓國目錄規則의 改訂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를 즈음하여 現行 書名基本記入의 未備한 點이 是正되었으면 하는 懇切한 마음에서 拙稿를 紙上에 公開하는 바이다. 韓國目錄規則에 있어서 未備한 點은 한두가지가 아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問題視되는 것은 아마 이 書名基本記入에 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우선 이에 關해서 論하기로 하였다.

II. 現行 書名基本記入의 立場에서 본 그 自體의 問題點

먼저 現行 書名基本記入의 形式이 어떠한가 考察하여 보기로 하자. 韓國目錄規則 37(4)b.에 의하면 「著者를 알 수 없거나 不確實한 것은 書名을 標目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三聖寶典, 海東無子 奉泉.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하는 예는 主著者名이 標題紙에 뚜렷이 表示되어 있지않거나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아닌 4人 以上の 共著書나 合著書인 경우에도 해당된

다. 4人以上の 共著書인 경우 韓國目錄規則에 나타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新約聖書概論, 池 東植 等著.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60.

1. 지, 동식

위의 예와 같이 韓國目錄規則에서는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할 때 한글로 表記하여 주지 않고 있으나, 張一世 著 「韓國目錄規則解説」 書에는 漢字로 되어 있는 書名에는 그 위에 한글로 表記를 한 후 排列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예를 提示하고 있다.

대백과사전  
大百科辭典. 서울, 學園社.

비록 韓國目錄規則에는 漢字書名 위에 表記하여 준다는 말은 없으나, 거의 大部分의 圖書館에 있어서는 「韓國目錄規則解説」 書에서와 같이 漢字書名 위에는 한글로 表記하여 주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方法은 日本目錄規則에서 起因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에 의하면 漢字書名은 日本音으로 읽어 로마나이즈해 주고 있다. 몇 개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Kokim Wakashū  
古今和歌集 紀貫之等奉敎撰

(Kiho tsushi)  
畿輔通志 陳儀等協修

(Tatami ni Kansuru Zadankai)  
疊に關する座談會

日本目錄規則에서는 著者名基本記入인 경우라도 漢字로 記載하여 주고 그 위에 書名基本記入과 같이 로마나이즈하여 주고 있다. 勿論 著者名이 かな로 나타나 있으면 例外이고 漢字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Kozu, Harushige  
高津 春繁

比較言語學

Nishida, Kitarō  
西田 幾太郎

善の研究

Shimazaki, Tosom  
島崎 藤村

破戒

Mishima, Yukio  
三島 由紀夫

金閣寺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1個人的 著書로서 基本記入의 形과 著者表示의 形이 同一할 때는 書名表示 다음에 다시 記載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日本目錄規則에서는 著者名基本記入과 書名基本記入이 文字面에서 完全한 調和를 이루고 있다. 換言하면 모든 標目은 漢字로 記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그 위에 日本音으로 읽어 로마나이즈하여 주고 있다. 이 경우 로마나이즈 대신 かな로 表記할 수도 있다.

그러나 韓國目錄規則에서는 事情이 좀 다르다. 그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標目은 한글로 記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書名基本記入에는 適用시키지 못하고 부득이 排列의 便宜上 그 위에 한글로 表記하여 주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니까 韓國目錄規則에서는 著者名基本記入은 한글로, 書名基本記入은 거의가 漢字로 記載되는 文字上의 調和를 이루지 못하는 自體矛盾性을 內包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歐美諸國에서 言語體系가 전혀 다른 東書 따위를 目錄할 때 書名基本記入인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이것은 他國의 圖書이므로 例外에 해당되며, 自國의 圖書는 書名基本記入인 경우라도 單一文字(로마자)를 使用하기 때문에 이러한 現象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韓國目錄規則에서는 同音異文字를 使用하는 관계로 國內에서 刊行된 圖書라도 著者名 基本記入과 書名 基本記入의 表示文字가 二元化되고 있다. 그러나 日本目錄規則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同音異文字를 使用하지만 自體矛盾性을 지니고 있지 않음은 이미 前述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日本目錄規則과 같이 모든 標目은 漢字로 記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그 위에 한글로 表記하면 쉽게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병도  
李, 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이 이  
李, 珥

栗谷全書

그러나 이 方法은 韓國目錄規則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圖書館에서 使用해본 결과 많은 不便한 點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副出이나 分出을 하는 경우라도 漢字로 나타난 著書나 書名은 漢字로 記載하고 다시 한글로 表記해 주어야만 理致上 옳을 것이다. 이러한 方法으로 하여 共著者가 副出될 때의 예를 살펴 보자.

(서 재진)  
徐, 載珍, 共著.

김 희철  
金, 熙喆

新制 熱力學, 金 熙喆, 徐 載珍 共著.

이와 같은 方法으로 하여 著者が 分出될 경우의 예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장 덕조  
張, 德祚  
함 성  
咸 聲

단편소설집  
短篇小說集. 서울, 韓國圖書出版社, 4291(1958)

基本記入의 文字를 單一化시키기 위하여 위에 든 예  
와 같은 方法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不便한 點이  
隨伴되는 것이다. 그러나 現行 書名 基本記入의 方式  
대로 한다면 이와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點이 韓國目錄規則이 지니고 있는 自體의 問題點인 것  
이다.

Ⅲ. 現行 著者名 基本記入의 立場에서 본 書名 基  
本記入의 問題點

韓國目錄規則의 著者名基本記入은 그것이 標目의 역  
할을 充分히 다 하고 있다. 우리의 目錄이니만치 著者  
나 書名이 漢字로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標目만은  
한글로 記載하여서 가나다順으로 排列하는 것이 尙當  
할 것이다.

標目은 排列의 基準이 되는 것이므로 統一된 形式만  
취한다면 어떠한 文字로 記載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洋書目錄도 統一된 形式이 可能하다면 다음  
예와 같이 標目を 韓字로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翻譯書인 경우 로마나이즈를 하지 않고 原書와의  
同時排列이 可能해 진다.

버틀러, 피어셔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by Pierce Butler.

버틀러, 피어셔

圖書館學概論, 피어셔·버틀러 著,  
劉 永玟 譯.

그러나 現在 우리의 輿件으로 보아 이것은 거의 不  
possible한 일이다. 些少한 外來語 하나를 韓字로 表記하  
더라도 千態萬樣인 處지에 人名까지 統一한다는 것은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英國의 大文豪 William  
Shakespeare를 우리로 表記한 것을 張 一世氏가 調査  
한 바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섹스피어            섹스피어            섹스피어  
섹쓰피어            세익스피어  
세익스피어            섹스피어

이처럼 有名한 人名의 表記도 가지각색인데 그렇지  
못한 人名의 表記에 있어서는 더욱 困難해질 것이 自  
明하다. 그래서 東書와 洋書를 混合排列하는 圖書館에  
서는 부득이 東書의 標目を 로마나이즈하여 單一目錄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나이즈한 目錄이 결코 優秀해서가 아니라 로마나  
이즈로서 東書目錄 標目の 統一이 可能하기 때문에 취  
하여진 便法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立場에서 우리  
말을 로마나이즈 하는 것이 옳으나 그렇지 않으면 로  
마자를 우리말로 表記하는 것이 옳으나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로마나이즈는 公共圖書館이  
나 國民學校圖書館에서는 不適當하며 特殊圖書館이나  
大學圖書館에서 可能한 方法이다. 現在 로마나이즈를  
하고 있는 代表的인 圖書館은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로마나이즈를 하고 있는 圖  
書館에서는 대개 日本目錄規則과 같은 方法을 취하여  
순수한 로마나이즈가 아니라 韓字를 標目으로 하고 그  
위에 다시 로마자로 表記하여 주고 있는 實情이다. 몇  
개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Yi, Byeong-do  
이, 병도

高麗時代의 研究, 李 丙巖 著.

Gim, Bu-sig  
김, 부식

三國史記, 金 富軾 著.

로마나이즈를 해 줄 바에야 차라리 基本記入 自體를  
바로 로마자로 하여 標目の 二重性을 피하는 것이 便  
利한 方法일 것이다. 이 때 韓字 標目은 無意味한 것  
이며 副出이나 分出를 할 때 支障을 받기 때문이다.  
위에 든 두가지 예를 이러한 方法으로 바꾸어 보면 다  
음과 같다.

Yi, Byeong-do

高麗時代의 研究, 李 丙巖 著.

Gim, Bu-sig

三國史記, 金 富軾 著.

이상의 예와 같이 標目은 그 圖書에 나타난 文字와  
關係 없이 어떤 文字를 使用하든지 統一된 形式만 취  
한다면 標目の 機能은 充分히 發揮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이 閱覽者에게 便利하나 不便하나 하는 차이밖

에 없다.

그렇다면 日本目錄規則에서와 같이 漢字標目 위에 다시 로마자나 かな로 表記하지 말고 바로 한글로 記載하고 서명 다음에 다시 標題紙에 나타난대로 記載하는 것이 理想的인 것이다.

**박, 종홍.**

一般論理學, 朴 鐘鴻 著.

**이, 가원.**

韓國漢文學史, 李 家源 著.

**정, 약용.**

牧民心書, 丁 若 鏞 著.

위에 나타난 한글로 된 基本記入인 박, 종홍, 이, 가원, 정, 약용 따위는 가나다順으로 排列을 可能하게 하고 있다. 결국 標目은 排列의 基準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書名基本記入도 한글로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漢字書名을 한글 가나다順으로 排列한다면 混亂을 惹起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論難이 없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 代案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지 便法으로 書名基本記入 위에 한글로 表記하여 排列의 基準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排列에 不必要한 冠稱 같은 것은 한글 表記의 對象에서 除外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  
校增東國輿地勝覽

삼운통고  
增補三韻通考

전운옥편  
校正全韻玉篇

이와 같이 冠稱은 不必要하므로 表記에서 省略하고 書名 가나다順으로 排列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漢字書名인 경우에는 무슨 妙案을 써서라도 標目만은 한글로 하는 것이 理想的인 것이다. 왜냐하면 著者名基本記入은 一律적으로 한글로 하면서 書名基本記入은 그렇지 못하고 排列의 便宜上 한글로 表記하는 것은 他國의 圖書目錄도 아닌 自國의 圖書目錄에 使用하는 文字上 一貫性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著者名基本記入의 立場에서 본 書名基本記入의 問題點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韓國目錄規則에서는 標目을 한글 가나다順으로 排列되게 하면서 使用되는 文字가 著者名基本記入인 경우는 한글로, 書名基本記入

인 경우는 거의가 漢字로 記載되고 있으니 우리의 圖書目錄으로서는 適當치 못하다는 것이다. 標目的 文字를 單一化하기 위해서 書名基本記入의 方式대로 한다면 著者名基本記入도 대개가 漢字로 記載됨으로 역시 그 위에 한글로 表記해 주어야 하므로 不便하지만 著者名基本記入의 方式대로 한다면 그것처럼 便利해진다. 그러므로 現行 書名基本記入은 무슨 妙案을 講究해서라도 著者名基本記入처럼 一律적으로 한글로 하는 方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筆者의 代案을 提示해 보기로 하겠다.

**IV. 現行 書名 基本記入의 變革에 관한 代案**

書名基本記入이 漢字로 된 경우라도 排列은 한글 가나다 順으로 하니까 標目도 著者名基本記入과 같이 한글로 하는 것이 理想的이라고 前述하였다.

그러면 우선 著者名基本記入의 形式에 대해서 韓國目錄規則 42條에 나타나 있는 바를 살펴보면 「個人著書는 本名을 姓부터 記入하고 姓과 이름 사이에 콤마 (Comma)를 찍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그러나 著者에 따라서 本名 以外的 이름, 例를 들면 筆名, 雅號 匿名 등이 本人 또는 文獻에 慣用되고 있어서 本名보다 더 有名하게 알려진 경우와, 帝王, 王族, 貴族, 僧侶 등과 같이 特殊形의 이름을 使用하고 있는 경우는 例外的인 取扱을 하여 有名하거나 또는 一般的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는 形式의 이름을 標目으로 한다. 한 著者에 대하여 一旦 주어진 形式의 姓名은 著者副出, 또는 主題名記入을 莫論하고 標目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언제나 最初에 採擇된 形式을 統一標目으로 하며 그 以外的 姓名으로부터는 副出하거나 參照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가 提示되어 있다.

김, 동리; 1911—

사반의 十字架, 金 東里 著.

※ 本名 金 昌貴를 副出 또는 參照.

조 등탁.

歷史앞에서, 趙 芝薰〔匿名〕著.

※ 匿名 趙 芝薰을 副出 또는 參照.

이와같이 그 圖書에는 「金東里」나 「趙芝薰」으로 나타나 있지만 基本記入은 「김, 동리」나 「조, 등탁」으로 되어서 標目的 生命이라 할 수 있는 排列과 形式을 一貫性 있게 하고 있다. 이것은 書名基本記入에 있어서 想像도 못할 問題이다. 이를테면 異名同書인 경우라도 基本記入目錄에서 함께 排列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도로 排列된다는 것이다. 著者名基本記入에서는 標目

의 統一을 그렇게 強調하면서 書名基本記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우리 나라나 日本처럼 同音二文字를 使用하며 異名同書가 많은 나라에서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點은 著者名基本記入에서 標目과 著者表示를 分離시킨 것처럼 書名基本記入도 그 위에 한글로 表記하여 副出이나 分出을 할 때 번거로움을 自招하지 말고 標目과 書名表示를 分離시키면 쉽게 解決될 수 있다. 이때 基本記入은 現行 書名基本記入의 바로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書名基本記入인 경우는 標目과 書名表示가 分離되더라도 행간인덴션의 方法에 따라 記載하여 目錄樣式的 國際的 統一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著者名基本記入과 같은 方法으로 하여 基本記入을 第1線에서 큰 글씨로 記載하고, 書名表示를 그 다음 行의 第2線에서 記載를 하게 되면 無著者, 名古典의 基本記入과 混同될 염려가 있어서 좋지 않다. 分離의 根據는 現行 書名基本記入이 二重의 目的을 갖고 있으니 「그 하나는 그 著書에서 쓰여진 그대로를 利用者에게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고, 둘째는 排列의 基準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두고 있다. 現行 著者名基本記入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일적 이와 같은 方法을 適用시킨데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앞에 든 예와 같이 趙芝薰이가 「조, 동탁」으로 基本記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著者名基本記入에서 이 方法을 適用시키지 못하였다면 異名同人인 경우라도 現行 書名基本記入의 異名同書처럼 전혀 별도로 排列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提示한 代案에 의해서 몇개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申用觀 等奉命 編.

통허현지. 通許縣志, 邵自祐 等編.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村容大 等奉命撰, 朴齊純 等奉命拔.

이것은 現行 書名基本記入을 標目的 機能과 書名の 機能으로 완전히 分離시킨 것이다. 이렇게 하면 書名을 副出이나 分出을 할 때는 한글로 하면서 基本記入만은 漢字로 하는 矛盾性도 없앨 수 있다. 逆으로 말하면 書名副記入은 漢字書名이라도 分離하여 한글로 해주고 있으니까 書名基本記入도 分離하여 한글로 해주어야 適當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基本記入은 獨立事項이므로 그 다음에 피리어드를 찍어야 한다. 이때 피리어드 대신 圓括弧, 角括弧, 캄마, 콜론, 세미콜론, 대쉬를 使用하여도 좋으

나 煩雜하며 다른 事項과 混同되므로 좋지 않다. 이러한 符號들은 獨立性이 없을 뿐만 아니라 基本記入 그 自體內에서도 使用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로 한글로 된 書名은 基本記入과 書名으로 分離할 必要가 없으므로 그 다음에 著者表示가 오더라도, 著者名基本記入에서 單一著者로 基本記入과 同一할 때는 著者表示를 省略하고 基本記入에 피리어드를 하는 것과 같이, 書名 다음에서도 피리어드를 해야 한다고 反問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現行 書名基本記入인 경우는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標目 即, 基本記入이 內包되어 있다는 事實을 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換言하면 漢字로 된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할 때는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獨立된 標目事項을 앞으로 끌어내지만 한글로 되어 있을 때는 끌어낼 必要가 없으므로 그대로 캄마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現行 著者名基本記入에서는 單一著者로 著者表示가 同一할 경우에는 著者表示를 생략 하지만 여기에서 提示한 代案의 경우에는 그 反對로 되어 書名基本記入과 書名表示가 同一한 경우에는 基本記入을 생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單一文字를 使用하는 目錄의 國際的 統一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現在 歐美의 諸般 目錄規則은 單一文字를 使用하는 目錄에 適當하도록 되어 있다는 事實을 안다면 곧 理解가 갈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圖書가 한글로 되어 있다면 歐美의 目錄規則을 그대로 適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現實은 한글과 漢字를 使用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데도 目錄의 國際的 統一을 強調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目錄이 된 곳이 많다. 現行 書名基本記入이 그 代表的인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筆者는 우리 나라에서 書名基本記入은 어차피 國際的 統一이 어려운 實情이므로, 便法으로 그 위에 한글로 表記하여 使用하는 現行 書名基本記入 代身本代案을 提示하게 된 것이다. 兩者 모두 目錄의 國際的 統一이란 見地에서 본다면 變則인 것이다. 이와 같이 兩者가 變則의 일 바에야 우리의 實情에 맞다고 생각되는 代案을 使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 V. 現行 書名基本記入과 代案 書名基本記入의 比較 檢討

#### A. 視覺的인 問題

代案의 書名基本記入은 전혀 새로운 形式이므로 어색한 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歐美의 圖書館이 처음 導入되어서 從來의 書名主記入에서 現在의 著者名主記入으로 轉換할 때 著者名主記入의 어색함에

비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現行 書名基本記入이 눈에 익어서 오는 先入感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時間이 흐르면 쉽게 親熟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排列의 便宜上 窮餘之策으로 基本記入 위에 한글로 表記하는 現行 書名基本記入보다는 合理性이 있기 때문이다.

B. 다른 標目과의 文字上 調和問題

진술한 바 있듯이 現行 書名基本記入은 著者名基本記入과 文字上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即 著者名基本記入은 한글로 記載하는데 書名基本記入은 거이 漢字로 記載됨으로 兩者가 같은 한글 가나다 順으로 排列하면서도 文字上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書名基本記入內에서도 基本記入은 거이가 漢字로 하고 副記入은 전부 한글로 하는 것도 역시 文字上의 矛盾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現行 書名基本記入은 카아의 上端에서 1.5cm되는 범위내에서 2行의 글자(表記와 基本記入)가 記載됨으로 副出이나 分出할 경우에는 완전한 유니트 카아 시스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代案의 書名基本記入에서는 모든 標目이 일률적으로 한글로 記載됨으로 文字上으로도 調和를 이루며, 한글로 表記하는 行이 必要 없음으로 副出이나 分出할 경우라도 行의 변동이 없이 완전한 유니트 카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C. Space의 活用問題

現行 書名基本記入은 한글로 表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書名이 아무리 짧더라도 1行의 Space가 浪費된다. 即

세계사상교양전집  
世界思想教養全集, 서울, 乙酉文化社. 1954.

9冊. 22cm.

이것은 韓國目錄規則의 附錄에 있는 예로서 行의 變動 없이 한글로 表記한 것이다. 이와같이 表記를 하기 때문에 行間은 狹小하니 記入體는 모두 3行이 되고 있다. 그러나 代案 書名基本記入에서는 基本記入과 書名이 連記되기 때문에 不用되는 Space를 有效適切하게 活用할 수 있다. 앞에 든 예를 이와같은 方式으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사상교양전집. 世界思想教養全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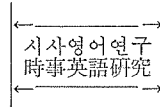
서울, 乙酉文化社, 1954.

9冊. 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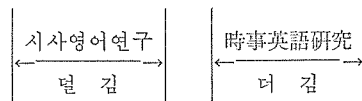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代案의 書名基本記入에서는 記入體가 2行으로 줄어 진다. 얼핏 보기에는 많은 Space를 차지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現行 書名

基本記入은 表記를 하게 되면 아무리 記入體가 짧아져도 2行 以內로는 줄일 수 없으나, 代案 書名基本記入에서는 記入體가 짧으면 1行으로 줄일 수도 있다.

또 表記를 手寫하는 경우에는 비록 小字로 쓰더라도 옆으로는 書名과 똑같은 Space가 所要된다.



그러나 基本記入과 書名을 分離하는 경우는 手寫를 할 때 한글이 漢字와 크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Space라도 또한 줄일 수 있다.



이것은 노트에 漢字 20字와 한글 20字를 쓰면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代案의 方式대로 하면 Space의 浪費를 줄일 수 있다.

D. 標目的 機能問題

現行 書名基本記入은 著者名基本記入처럼 標目的 機動性이 없다. 著者名基本記入에서는 著者の 本名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本名을 基本記入으로 하고 그 圖書에 나타난 形式名을 著者表示欄에 表示한다.

이, 광수

無情, 春園[號] 著.

그러니까 위의 예와 같이 李光洙가 지은 作品에는 本名이 아닌 다른 形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慣用되는 이 光수를 基本記入으로 하여 한 곳으로 集結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現行 書名基本記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實情이다. 이를테면 無著者名古典이 아닌 同名異書로서 書名이 基本記入으로 될 경우에는 基本記入目錄에서 전혀 별도로 排列된다는 것이다.

고문정수  
古文精粹

표음고문구해정수대전  
標音古文句解精粹大全

이상의 예는 同一한 冊이지만 前者는 가 行에, 後者는 파 行에 排列되고 있으니 基本記入의 역할을 완전히 發揮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代案 書名基本記入에서는 慣用書名인 標音古  
不句解精粹大全을 基本記入으로 하여 한 곳으로 모이

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은 일대 革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음고문구해정수대전. 古文精粹

표음고문구해정수대전. 標音古文  
句解精粹大全

이렇게 하면 書名 基本記入도 著者 名基本記入처럼 標目的 機能을 완전히 發揮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우리의 古書에는 同名異書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方式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E. 冠稱의 障礙問題

現行 書名 基本記入은 冠稱이 있는 경우 表記에 不便할 뿐만 아니라 外觀上 보기도 좋지 않다.

문학교양선집  
(現代人을 爲한) 文學教養選集

삼운통고  
(增補) 三韻通考

위의 예를 보면 冠稱이 있으므로 인해서 漢字와의 表記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아주 어색한 감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이 冠稱을 빼 버릴 수도 없다. 이때 冠稱을 빼 버리면 그 圖書에 나타난 그대로의 書名을 閱覽者에게 알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代案 書名 基本記入에서는 冠稱으로 인한 拘礙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그 圖書에 나타난 書名을 精確하게 閱覽者에게 傳達할 수 있다.

문학교양선집. (現代人을 爲한) 文學教養選集

삼운통고. (增補)三韻通考

한글 書名으로 冠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書名을 2重으로 記載해 줄 필요없이 省略符號를 使用하면 된다. 即「알기쉬운 전과지도서」라는 圖書의 目錄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전과지도서. (알기쉬운)...

그러나 한글로 된 書名으로 冠稱이 있는 것은 極小數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現象은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IV. 結 論

以上에서 現行 書名 基本記入에 많은 不合理한 點이 있음을 指摘하고, 새로 그 代案을 提示하였다.

現在 東書目錄의 標目은 한글로 記載함을 慣例로 하고 있으나 書名 基本記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排列의 便宜上 부득이 漢字書名일 경우는 그 위에 한

글로 表記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目錄上 여러가지 不便한 點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拙稿에서는 書名이 基本記入으로 될 때 書名과 基本記入의 機能을 分離시켜서 漢字書名인 경우라도 基本記入을 한글로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하면 모든 標目은 一律的으로 한글로 記載되며, 副出이나 分出을 하더라도 障礙를 받지 않는다.

또 代案에 의하면 目錄 카아드의 Space를 節約할 수 있다. 即 基本記入과 書名의 機能을 分離하여 連記할 경우 現行 書名基本記入에서 한글로 表記할 때 一律的으로 차지하는 Space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代案에서 가장 特記할만 한 것은 標目으로서 機能 發揮問題의 解決이다. 現行 書名 基本記入은 同一한 內容의 冊이라도 書名이 다르면 基本 記入目錄에서 전혀 別개로 排列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提示한 代案에 의하면 著者名基本記入의 경우처럼 異名同書일 때는 그 중 더 慣用되는 것을 基本記入으로 하여 한 곳으로 集中시킬 수가 있다.

이외에도 본 代案에 따르면 冠稱으로 인한 障礙를 받지 않는다. 現行 書名 基本記入에서는 排列에 관계가 없는 冠稱이 있으면 한글 表記가 冠稱 위에서 시작됨으로 書名과 一致하지 않아서 表記에 不便하며 美觀上도 좋지 않다. 그러나 代案에서는 基本記入欄이 獨立됨으로 인해서 冠稱의 障礙는 처음부터 받지 않게 되어 있다.

<參考文獻>

- (1) 朴熙永. “東書目錄에 있어서의 基本問題”도협월보, Vol. 14 No.5 1973. 5 pp.11—18.
- (2) 小野則秋. 圖書目錄의 作り方. 京都, 蘭書房, 1952.
- (3) 日本圖書館協會. 日本目錄規則. 東京, 1965.
- (4) 日本圖書館協會. 整理技術テキスト. 東京, 1964.
- (5) 張一世. “「韓國目錄規則」에 관한 質疑에 대한 解答” 도협월보, Vol.15 No.4—5. 1974. 4—5 pp.12—15, pp.21—23.
- (6)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説.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 (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Chicago, 1967.
- (8) I.F.L.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Preliminary official report. Paris, 9—10th Oct., 1961.
- (9) U.S. Library of Congress. A cataloging of Chinese local histories in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U.S. Govt. Print. Off., 1942
- (10) U.S. Library of Congress. A descriptive catalog of rare Chinese books in the Library of Congress, Comp. Wan Chun-min. Washington, 1957.